

2015 바다미술제

Sea Art Festival



09.19-10.18
다대포해수욕장 Dadaepo Beach

See — Sea & Seed
보다 — 바다와 씨앗

부산광역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섹션 1. 산포하는 씨앗

- 마티아 루리니
- 이경호
- 앤디 드완토로
- 신원재
- 오태원+고은
- 김원근
- 노주환
- 이이남

섹션 2. 발아하는 씨앗

- 도릿 크로시어
- 조덕현
- 그림 아키스트
- 그림 세라에너지
- 사라웃 추티웅페티
- 최선
- 스테판 올렌도
- 친탄 우파드아이
- 차가울

섹션 3. 자라는 씨앗

- 리그돌 텐징
- 김정민
- 전원길
- 페르난도 알바레스 페레즈
- 오노 요코
- 이중균
- 정찬호
- 김영원

섹션 4. 자라는 바다

- 윤영화
- 조셉 타스나디
- 손현욱
- 그림 VGABS
- 코넬 알베르투스 오우웬스
- 이명호
- 조나단 폴 포어맨
- 루드위카 그라지나 오고르젤렉

특별전_나는 바다

- 피터 린 카이트

작물관람 TIP.

2015바다미술제 작가 및 작품에관한 자세한내용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usanbiennale.org/m

보다 — 바다와 씨앗

2015바다미술제는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을 거쳐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의 특별한 공간성에 주목한다. 새로운 공간에 예술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야심찬 출발 지점이다. 그것은 마치 소금기 가득한 해변에 씨앗을 뿌려 식물이 자라나길 기대하는 모험심 가득한 실험이다. 2015바다미술제는 실험적인 현대미술 전시를 지향하면서도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고취하는 투트랙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즉 예술 창작과 예술 향유의 씨앗을 함께 발아시키는 것이다.

2015바다미술제 전시 주제인 '보다 — 바다와 씨앗(See — Sea & Seed)'은 다음의 의미들로 제시된다. 다대포(SEA)의 수평적(—) 전시 공간에 예술의 씨앗(SEED)을 뿌리는 바다미술제에 미술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하고(&), 예술 향유의 기쁨을 나누는(=) 관함으로써 가까이 초대(SEE)한다. 이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의 관계 지형이 다대포로부터 모든 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이제, 이곳에서 사람과 바다, 예술과 지역, 미술가와 시민들이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확인하는 네트워크의 관계 지형이 펼쳐진다.

2015바다미술제는 전시감독의 초대받은 국내 · 외 작가들의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제 미술 현장의 원로, 중진, 신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 작가들의 주제와 전시 공간에 대한 창의적 해석을 선보일 예정이다. 산책로를 점유하는 색선인 '산포하는 씨앗'과 더불어 해수면 위에는 기념비적인 조각은 물론 지하철 공사가 한창인 어수선한 다대포의 풍경을 연장하여 공간을 재해석한 실험적인 오브제 설치 위주의 작품들로 구성되는 색선인 '자라는 씨앗'을 선보인다. 그것은 미려한 원성이기보다는 에너지가 충만한 미완성을 지향한다.

실험적 작품으로 충만한 드넓은 다대포해수욕장의 수평적(—) 공간과 더불어 타국의 침략에 맞섰던 다대포의 과거 역사를 재해석한 색선인 '발아하는 씨앗-상상발굴프로젝트'라는 반지하의 또 다른 수평적(—) 공간은 관람의 키워드이다. 이 반지하의 컨테이너 공간에는 다대포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공간을 발굴하고 재해석하는 프로젝트형 예술, 미디어아트, 설치 작품들이 예술의 색채를 입은 아카이브 등과 함께 선보인다. 이것은 역사를 '팩션'이라는 이름으로 추적하는 상상의 미술 놀이이다. 이 공간과 해변의 수평적(—) 공간으로부터 솟아오를 수직적(!) 공간인 몇 개의 고원과 언덕 위에서 관객들은 어떠한 오마주 작업들을 발견하게 된다. 낮과 밤의 전시 풍경이나, 해변 위에 지도를 그리는 구불구불한 동선 유도선, 관객을 맞이하는 특별 안내소도 2015바다미술제의 볼거리이다.

더불어 이번 바다미술제를 빛내는 특별전, 국제심포지엄,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예술가는 물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다양한 부대행사로 함께 선보인다.

전시특징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전시 주제, '보다 — 바다와 씨앗'

전시 주제 '보다 — 바다와 씨앗(See — Sea & Seed)'은 새로운 개척 장소인 다대포해수욕장에 예술의 씨앗, 즉 작품을 전시하여 새로운 예술이 창조되고 발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2015바다미술제는 전시감독이 초대한 국내외 작가들이 만드는 '본전시'와 뉴질랜드 한 기업(Peter LYNN Kiles Ltd)이 참여하는 '특별전'으로 구성된다. '본전시'는 크게 컨테이너를 활용한 실내 전시와 야외 전시로 구분되며, 개념적으로는 1)산포하는 씨앗, 2)발아하는 씨앗-상상발굴프로젝트, 3)자라는 씨앗, 4)자라는 바다는 4개의 색선으로 나뉜다. 2015 바다미술제에서는 산포되고 발아하여 자라는 씨앗과 바다라는 각각의 스토리텔링에 따라 작품을 배치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입구를 비롯한 전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해변과 바다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대포해수욕장을 새로운 예술의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경계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 작품들

이번 2015바다미술제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콜라보레이션(협업)'이다. 작가 간의 협업, 현업, 인문학과의 협업, 그룹 간의 협업, 관람객과의 협업 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고은 시인과 함께 작업하는 오태원(한국)의 협업 작품, 전국 어린이들이 만든 바람개비로 제작되는 노주환(한국)의 <사랑해요, 천 개의 꿈>, 러시아, 프랑스, 미국, 한국의 4개국 출신 작가들의 협업 작품 <상상 열전>, 부산 지역 미술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고고학과와 미술학과와 협업 작품 등이 거론될 수 있겠다. 이처럼 콜라보레이션 작업들을 선보임으로써 야외 전시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넘어 상호 시너지를 만들고, 이를 통한 일반 대중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 미술제에서 보기 힘든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의 출현

2015바다미술제에는 기존의 바다미술제에서 주로 선보였던 조각, 설치 작품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작품 장르에 도전한다. 특히 광활한 해변을 압도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다대포해수욕장만이 가진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시도한다. 해변 끝에 있는 (구)환경시설공단 벽면에 투사하는 이경호(한국)의 비디오 영상 작업과 물론대 능선에 투사하는 이이남(한국)의 레이저아트는 새로운 야외 전시를 실험하는 미디어파사드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관객 참여형 예술과 퍼포먼스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의 경우, 미국에서 안전상황에 도착하자마자 인천으로부터, 내륙을 거쳐 동해를 지나 남해에 이르기까지 10곳의 장소를 지나면서 100개의 휴대폰을 담아와 최종적으로 다대포에 펼쳐 놓는 탠징 리그돌(미국)의 노마딕 프로젝트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외 미술인과 기관들이 마중과 배웅을 함께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특별하다. 또한 특별전에 참여하는 뉴질랜드 기업(Peter LYNN Kiles Ltd)이 참여하는 대형 연날리기 퍼포먼스 등 색다른 퍼포먼스들이 예정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바다미술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퍼포먼스는 관객의 참여로 완성된다. 관객의 소망쪽지를 나무에 걸어 완성되는 요코 오노(미국)의 작품 <소망나무>는 관객 참여형 작품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아올라 앤디 드원토로(인도네시아), 최선(한국), 친탄 우파드아이(인도) 등 다수의 참여 작가들이 퍼포먼스로 실행하는 관객 참여 작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역사를 토대로 한 팩션(faction)의 공간으로 꾸며질 '상상발굴프로젝트'

'발아하는 씨앗(상상발굴프로젝트)'은 2015바다미술제 4개의 색선 중 주요한 색선이다. 이 색선은 '발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발아'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다대포가 가진 역사적 상상력을 '발굴'하는 행위들을 통해 역사를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이 창조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상상발굴프로젝트'를 통해 타국의 침입이 찾아낸 다대포 지역의 역사성에 주목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을 반추하는 '팩션'의 개념을 담아내고자 한다. 즉 컨테이너 7동의 내외부에서 사실(fact)을 해석하는 허구(fiction)의 상상을 개입시키는 미술가들의 상상발굴프로젝트를 통해 관객은 저마다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2015바다미술제

바다미술제 보고, 소카 타고!



SOCAR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원하는 시간만큼 모바일로 간편하게 예약>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입니다.

쿠폰 사용방법

회원가입 시 가입경로>프로모션코드>[2015바다미술제] 입력
SO회원 가입 완료 시 1시간 쿠폰 자동 지급
코드 등록기간: 2015.10.18 이내
쿠폰 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쿠폰 상세 조건은 마이페이지>내쿠폰에서 확인 가능



출품작가 퍼포먼스 일정

o 2015바다미술제 출품작가 퍼포먼스				
작가명	기간	시간	장소	내용
이중균	1차 9. 19 ~ 9. 23 2차 10. 8 ~ 10. 10	13:00 ~15:00	다대포 해수욕장	관객이 참여하여 물고기 형태의 망태기에 쓰레기를 채워가며 이동하면서 작품을 완성하는 예술 체험 퍼포먼스
조덕현	9. 18, 9. 26 10. 3, 10. 10, 10. 17	11:00 ~12:00 13:00 ~17:00	출품작 앞	가상의 발굴퍼포먼스
그림 세라에너지	9. 19	16:00 ~18:00	출품작 앞	노천 소성을 통한 토기 제작 퍼포먼스
최 선	9. 17 ~ 9. 21	10:00 ~18:00	출품작 컨테이너 앞	컨테이너 앞 책상 위 펼쳐진 캔버스 위에 작가가 땅구어 놓은 아크릴 물감을 관객들이 손을 붙여넣어 무수한 손길을 만들어 가면서 작품을 완성해 가는 예술 체험 퍼포먼스
도릿 크로시어	9. 18 ~ 9. 19	16:00 ~18:00	출품작 앞	한국의 봉화를 재연하여 장작으로 휴탄에 불을 피우는 퍼포먼스
친탄 우파드아이	9. 20 ~ 9. 21	16:00 ~18:00	출품작 컨테이너 앞	1단계 : 폐자 원색페인트 칠하기 2단계 : 폐자 부시기 3단계 : 시민들과 폐자에 꽃과 식물들 심고 구성하기
조나단 폴 포어맨	9. 17 ~ 9. 23	상시	다대포 해수욕장	다대포 인근 순수 자연물을 수집하여 즉흥적으로 작품 제작, 백사장 드로잉 퍼포먼스
앤디 드완토로	9. 18 ~ 10. 18	작품 완성시까지 진행	출품작 앞	작품 앞에서 관객이 참여하여 바다미술제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 왔을 사진을 매일 10인씩 선정하여 100명이 되었을 때 완성
오노 요코	9. 18 ~ 10. 18	상시	출품작 앞	관객이 자신의 소원을 기원하는 소망 쪽지를 작가의 소망나무에 매다는 관객 참여 퍼포먼스

